

교회소식

- 예배 후 당회원, 안수집사 연석회의가 있습니다(느헤미야 실, 1시 45분).
- 오늘은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찬양, 기도, 안건 토의).
 - 1남: 유아실 1여: 아동부실
 - 2남: 본당 2여: 청년부실
 - 3남: 세미나실 3여: 로비
 - 4남: 아동부실(구) 4여: 느헤미야실
- 설날 추모예배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남성을 위한 주일 상설 성경 읽기반을 모집합니다(40분).
- 다음 주 1부 예배 후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느헤미야 실, 1시 45분).
- 성경 공부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과목	개강	기간	인원	담당
기도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1주	9명	이성훈 목사
신앙의 토대 (화상)	2월 23일 오후 7시 45분	11주	9명	이태한 목사
청지기의 삶	2월 21일 오후 2시 45분	11주	10명	이태한 목사

* 기도 과목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중 한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 청지기의 삶은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중 두 과목 이상 수료해야 등록 가능

- 전교인 야외 예배가 오는 2월 8일 (월) 각 공동체별로 있습니다.

장소: 원 트리 힐 Cornwall Park

ASB Showgrounds (그린레인) 입구에서 바비큐시설 쪽

시간: 10시 30분

- 새 교우 등록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가운 (청년) 021-0274-6411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FEBRUARY

교회사역일지

2월 17일(수)
참회의 수요일
2월 21일(주일)
사순절 1
2월 24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2월 28일(주일)
청년 주일, 제직회

기도순서

2월 14일 (주일)
손조훈 집사
2월 17일 (수)
김영아 집사
2월 21일 (주일)
정덕수 장로
2월 14일 (수)
김은희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정인, 김현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소진, 박해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06호 2021.02.07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Praise		
예배로부름	시편 43:3-4	인도자
Call to Worship		
* 찬송	10장	다함께
Hymn		
* 참회의기도		다함께
Prayer of Repentance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찬송	288장	다함께
Hymn		
대표기도		현석호 장로
Prayer		
성경봉독	창세기 18:9-15	인도자
Scripture		
찬양대찬양	내 구주 예수님은	나무십자가 찬양대
Choir		
설교	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태한 목사
Sermon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함께
Hymn		
헌금기도		인도자
Offering		
교회소식		인도자
Announcements		
*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Closing Scripture		
*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Closing Hymn		
* 축도		이태한 목사
Benediction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동역자님들께!

20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내 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또 한 해를 열심히 맡긴 사명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다짐하며 지난 12월과 1월 사역 내용을 나눕니다.

1. 성탄절 축하 예배 및 신년 주일예배: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 뜻깊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2주가 넘게 바이러스와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생명을 연장 받아 성도들과 맞이하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도 Covid19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성전으로 나온 이들을 보는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매 주일마다 1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선포하였고 힘든 줄 모르고 2시간이 넘는 예배를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며 모두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그동안 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 선물 팩을 만들어 자원하여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2.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받은 사랑의 빛: 지난해 사역지 폭동 속에서도 살아남은 저희 부부는 11월 말, 코로나인지 변종인지? 이름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열, 기침, 설사, 구토로 사투를 벌이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 생명을 연장 받아 사역에 다시 복귀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서 안부를 물어 오시는 가슴 뭉클한 온정의 손길을 주셨고 선교사가 가까이서 살뜰하게 챙겨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격려와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이 속히 회복되어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2.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김선화 권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2:1-7
설	교	Sermon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61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2021년 1월 31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하나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8:1-8

성경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핍니다.

1) 아브라함은 찾아온 초라한 나그네를 개의치 않고 맞이합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던 마므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제사가 아닌 쉬고 있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1). 하나님은 부지중에 찾아오시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대로(롬 12:1)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요 1:9-11). 세상의 목적은 오직 쾌락과 성공이기 때문에 초라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받은 후 믿음이 자라게 되자 아브라함의 삶은 은혜가 지배하게 되어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어 보여 인생의 구색 맞추기와 액세서리로 대한다면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 초라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초라해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어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전 1:18).

2)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겸손하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99세 노령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 즉시 움직였습니다(6). 첫눈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을 맞는 성숙한 믿음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는 것처럼(히 13:2)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자(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접을 베풀면서도 오히려 간청하며 허락하심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가장 천한 일인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섬김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와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그리하라”(5)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급히 달려와 속히 준비한 아브라함의 모습은(6-7) 환대를 베풀며 오히려 감사하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습니다(마 7:12). 아브라함은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벧후 1:5-7) 겸손과 감사로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환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환대와 일상의 환대를 받았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병이여로 환대의 공간으로 바꿀 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환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마 25:40) 누구인지 구별 없이 무조건 대접할 때 부지중에 하나님을 환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감사로 성도들의 삶의 터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2. 영적 분별력이 충만하여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